

회계감리나 철수냐... 딜레마 빠진 정부와 한국GM

금융당국 "GM, 한국GM에 고리대금 장사"
GM 본사 "정부·산은 지원거부시 韓 철수"
한국GM 철수시 지역 경제·실업사태 우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 가능성까지 고조되며 한국 제너럴모터스(GM)가 흔들리고 있다.

본사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GM은 한국 정부와 산은이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해 한국 GM 철수설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한국GM이 본사 GM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왔다는 의혹이 지난해 정부 위 국감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GM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글로벌GM(GM홀딩스)으로부터 수년간 2조4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연 5%로 높아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GM은 결과적으로 5%대 관계사 차

입 이자율(고정 연 5.3%)이 산업은행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최고 연 7%)보다 낮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산업은행 우선주에 최대 연 7%의 현금배당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자율 5.3% 차입으로 15억달러의 1.7%(7-5.3%)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이 한국GM의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금대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GM 관계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GM의 매출 대비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 매출의 65%를 수출하는 한국GM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본사에 차량을 판매, 지나치게 원가율이 높아 '일부러' 적자를 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등을 회계상 보수적으로 처리하느냐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매출원가율이 왜 다른 회사처럼 80%대 아니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 90%대인지는 회사의 본질적 상태(펀더멘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한국GM은 국내 상장 자동차 업체보다는 보수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분류하는 비중이 커 매출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예를 들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국내 경쟁기업처럼 자산 처리하면 90%대가 넘는 매출원가율이 80% 중반까지 낮아진다는 게 한국GM의 주장이다.

본사 GM이 업무지원을 명목으로 한국GM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지만 한국GM은 본사가 글로벌 관계사들에 회계, 세무 등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경영업무 지원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운영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M은 관계사에 글로벌 구매·물류·회계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개별 관계사 운영의 필수 요소인 데다 복수 계열사에 공통 서비스를 지원하면 관계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GM측의 설명이다.

'쉐보레 유럽'이 한국GM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GM이 유럽 철수비용을 한국GM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방한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나 한국GM 지원 가능성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직·간접 고용 인력은 30만 명에 가까워 GM이 철수를 강행하면 지역경제 타격과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 관건은 지원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인데 이 경우 부실기업에 거액의 세금을 집어넣는 것이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선박·항공기·그림' 특별한 투자... 57.8兆 몰렸다

'선박, 항공기, 그림, 지적재산권, 인프라, 탄소배출권...'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에도 대체 투자처로 꼽히는 '특별자산펀드'에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 특별자산펀드는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펀드에서나 가능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모·사모펀드 통틀어 특별자산펀드의 순자산은 57조8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6일 50조(50조472억원)를 돌파한 후 1년도 채 안돼 6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

초기 자산규모가 10조원에서 20조원이 되기까지 4년 94일이 걸렸지만 30조원까지는 2년 143일, 40조원까지는 1년91일, 50조원까지는 1년여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형보다는 해외형의 증가세가 빠르다. 2008년 9.7%에 머물던 해외특별자산펀드는 10년여 만에 31.66%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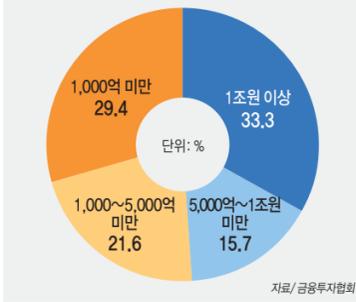
특별자산펀드는 농축산물부터 미술품, 영화, 선박, 도로, 특정 사업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뒤 가치를 키워 매각하거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투자 대상도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도 쉽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투자대상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어려워 폐쇄형이 주류를 이룬다. 예로 항공기펀드는 펀드 모집기관이 비행기를 구매·리스해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자금을 빌려준 뒤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비교적 장기간 환매가 금지된 상품이 많다 보니 80% 이상이 고액 자산가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특별자산 펀드 규

순자산규모별 특별자산펀드 자산운용사 비중



등산에까지 막무가내식으로 투자하는 등 일부 자산운용사의 '무리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모로 운용되는 펀드가 많은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기관들이 채권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주식에 일부를 투자했지만 최근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보다는 대안상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별자산펀드도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조금 높지만 수익률은 플러스알파를 기록하는 편이라 기관에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금 등 큰 손들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올해 대체투자를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전체 자금 자산 중 12.5%까지 확대한다.

/김민호 기자 kmh@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